

대학 피아노전공생 대상 건반화성 수업의 교재 비교 분석 연구

정 윤 정*

본 연구는 대학의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건반화성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한 연구로 향후 교재 선택 및 개발과 수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8종의 교재이며, 먼저 외형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다음으로 월튼(Walton, 1951), 덕월스(Duckworth, 1960), 닉렛(Nicklett, 1966)이 제안한 조건, 귀로 듣고 치기, 화성화, 숫자저음, 총보 연주, 화음 패턴, 이조, 즉흥연주 등의 8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그 구성과 내용상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교재는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음악전공생과 비음악전공생 모두를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였다. 또한 대부분 교재가 출판된 지 수 십년이 되었으며, 교재에서 다루는 활동이 2-3가지로 제한적인 교재들이 있었다. 내실 있는 건반화성 수업을 위해서 피아노전공생만을 위한 차별화된 난이도와 다양한 건반활동을 포함한 전문적인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 주제어: 건반화성, 건반화성 교재, 피아노 전공, 다양한 건반활동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주요 대학의 건반화성 수업의 개요.
2. 국내외 관련 연구 고찰.
3. 피아노전공 대상의 다양한 건반활동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V. 피아노전공생 대상 건반화성 수업의 교재비교

1. 교재의 외형적 특징 비교
2. 교재의 활동 구성 비교
3. 교재의 내용 비교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광주교육대학교 강사

I. 서론

국내 대학에 선택 혹은 필수과정으로 개설 되어있는 건반화성은 건반위에서 서양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화성학에 관련된 여러 내용을 직접 건반위에서 실습하는 과목이다. 이는 눈, 손, 귀를 통해 동시에 익힐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순발력,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음악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과이지만 국내의 경우 학교에 따라 주로 피아노 전공과 작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개설되기도 한다.

건반화성을 통해 피아노전공생들은 무엇보다 건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Brings, 1979). 또한 음악적 관찰과 지각에 있어서 귀를 더욱 예민하게 할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며 보고, 눈으로 보며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Simpson, 1963).

월튼(Walton, 1955)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이 연주하는 곡의 구조와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건반화성 수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실제 음악문헌의 곡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반주, 즉흥연주, 이조, 귀로 듣고 치기 등의 내용 등을 건반화성 수업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화성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조건과 암보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또한 피아니스트로서 반드시 필요한 곡의 구조를 분석하고 악곡을 해석하는 능력도 길러지는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덧붙인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건반화성 수업이 단지 화성 붙이기나 숫자저음 등의 이론적 내용을 건반에서 실습해보는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러스티드(Lusted, 1984)에 의하면 미국의 동남부의 83개 대학교를 조사한 결과, 건반화성 수업 시간에 이조, 즉흥연주, 조건, 귀로 듣고 치기, 화성화, 숫자저음 등의 다양한 활동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국내의 피아노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반화성 수업은 어떠할까.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그 선택과 활용에 있어서 교육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피아노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반화성 수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전국의 피아노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반화성 교재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반화성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이루어질 교재 선택과 개발 및 수업의 방향성을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건반화성 수업의 개요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1980),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1980),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003) 등의 외국의 음악관련 사전에서는 ‘Keyboard harmony’가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건반화성을 ‘피아노나 풍금의 건반 위에서 진행하는 화성 실습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는 피아노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반화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주요 대학의 건반화성 교과목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전공을 대상으로 개설된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략하여 서술하였다.

<표 1> 국내 주요 대학의 피아노전공 대상의 건반화성 교과목의 개요

대학	교과목 개요
A	화성학 등 음악이론 교육과 병행... 건반악기를 위한 숫자저음, 조옮김, 즉흥연주, 4성부화음, 전조, 반주, 이조 등을 통해 전공에 필요한 기본 실기를 연마...
B	피아노 건반을 통하여 통주저음, 총보독보, 전조, 즉흥 연주, 조건 등을 배운다.
C	숫자저음, 총보독보, 이조, 4성부화성, 전조, 조건을 통해...
D	오선지 위에 분석한 화성진행이 실제로 건반에서... 숫자저음을 통해 연주하고, 즉흥연주와 화성의 기능 및 구조를 이해...
E	건반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건반 실습을 통하여... 화성을 귀로 이해하고... 곡의 전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건반화성의 이해의 끝은 즉흥연주에 있다고 본다.
F	화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 습득... 귀로 훈련... 4성부화성, 반주, 이조, 조건 능력 향상을 실습을 통해 육성...
G	화성적 이론을 실습을 통해 즉흥 조마꿈 등 실제적 연주에 응용...
H	화성학을 건반을 통해 이해...

수업의 실체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면밀히 파악 할 수 있겠으나 위의 표를 통하여 교과목의 개요를 정리해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수의 대학에서 다양한 건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건반화성 수업의 개요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반화성 수업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성을 폭

넓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반주, 이조, 즉흥연주, 초견 등)은 피아노전공생들에게 연주나 교육현장에서 많이 요구되기에 그 중요성을 교육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국내외의 관련 연구 고찰

피아노전공생을 위한 건반화성 수업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의 유일한 김정미(2014)의 연구는 서울시 6개의 대학의 건반화성 수업의 내용과 진행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로서 1개교를 제외한 5개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주어진 건반화성실습(Morris, 1987)”의 문제점을 논하며, 숫자저음 실습은 바로크 시대의 스타일로서 오늘날 피아니스트가 활용하거나 적용할 경우가 극히 드물며 이 교재의 구성과 내용의 한계로 인해 즉흥연주, 조옮김, 반주 만들기, 귀로 듣고 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제외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자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지만 건반화성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활동, 즉 숫자저음 실습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어 그 외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혀, 제시된 다양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교재 간의 비교 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국외 연구로 미국의 특정지역의 대학의 건반화성 수업의 실태를 조사한 러스티드(Lusted, 1984)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수업의 내용, 시수, 대상, 교재 사용 등에 관한 실태를 제시할 뿐 교재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다.

3.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건반화성의 다양한 건반 활동

월튼(1951, 1955)은 Transposition(이조), Improvisation(즉흥연주), Figured Bass(숫자저음), Accompaniment(반주), Harmonization(화성화 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성을 더욱 잘 이해 할 뿐만 아니라 악곡의 구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개발 되는 등 피아노 연주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기술들이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아노전공생들에게는 연주자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반화성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들

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피아노전공생이 훈련해야 하는 여러 가지 건반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월튼이 제안한 활동에서 몇 개가 추가 혹은 제외된 것이다. 덕월스(Duckworth, 1960)의 연구에서는 피아노 교육자나 연주자를 위한 강의 구성에 있어서 Harmonization(화성화), Improvisation(즉흥연주), Play by ear(귀로 듣고 치기), Transposition(이조), Sight Reading(초견) 등을 포함해야 하고. (Macdonad 1989, 재인용), 닉렛(Nicklett, 1966)은 피아노전공생들에게 Accompaniment(반주), Sight Reading(초견), Harmonization(화성화), Transposition(이조), Improvisation(즉흥연주), Playing Scores(충보 연주)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맥도날드, 1989, 재인용). 그렇다면 각 활동들은 피아노전공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초견은 사전에 준비 없이 악보를 읽고 연주해야 하는 것으로 연주자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악곡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유익한 기술이며, 이는 특히 다른 연주들과의 앙상블에서 더욱 필요한 기술이다. 초견에 대해 스타우퍼(Stauffer, 2005)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악보에 담긴 상징과 의미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 한다(김수경, 2015, 재인용). 상황에 따라 사전에 준비 없이 독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초견 능력은 연주자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여유롭게 연주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충보 연주는 학생들의 향후 교육, 연주 활동을 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합창, 합주를 지도하거나 전문 연주자로서 여러 악기와 앙상블을 할 때 필요한 독보력과 순발력 등을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로 듣고 치기는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귀로 듣고 암보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집중력, 암보력을 길러주고 즉흥연주와 더불어 순발력, 창의력 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연주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다. 화성화는 반주와 연계되어 다른 연주자들과 앙상블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로서, 향후 반주자로서 진로를 계획한다면 더욱 요구되는 기술이다. 화음패턴과 숫자저음은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을 건반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연주하는 악곡에의 적용을 통해 악곡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길러준다. 또한 학습한 내용들을 즉흥 연주와 반주에 적용할 수 있어 연주 활동을 위해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

즉흥연주는 순발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데 암보로 연주하는 상황이 많은 피아노전공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조에 관해 레머(I. Lehmer, 2016)는 음악의 음향을 내면의 귀로 들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조는 피아노전공생이 반주 활동을 하거나 다른 악기들과의 앙

상블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기에 반드시 학습 및 훈련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피아노전공생의 졸업 후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건반 활동들은 화성의 이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건반화성 수업에서 화성학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각 학자들이 제안하는 활동을 종합하면 총 8개의 활동으로 정리되며, 초건, 화성화(반주), 이조, 즉흥연주의 4가지 활동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건반화성 수업에서 가능한 건반 활동

연구	활동
C.Walton (1951&1955)	초건, 귀로 듣고 치기, 반주, 화음패턴, 이조, 즉흥연주, 숫자저음
G.Duckworth (1960)	초건, 귀로 듣고 치기, 화성화, 이조, 즉흥연주
G.Nicklett (1966)	초건, 총보 연주, 화성화, 반주, 이조, 즉흥연주
종합	초건, 총보 연주, 귀로 듣고 치기, 화성화 (반주), 화음패턴, 이조, 즉흥연주, 숫자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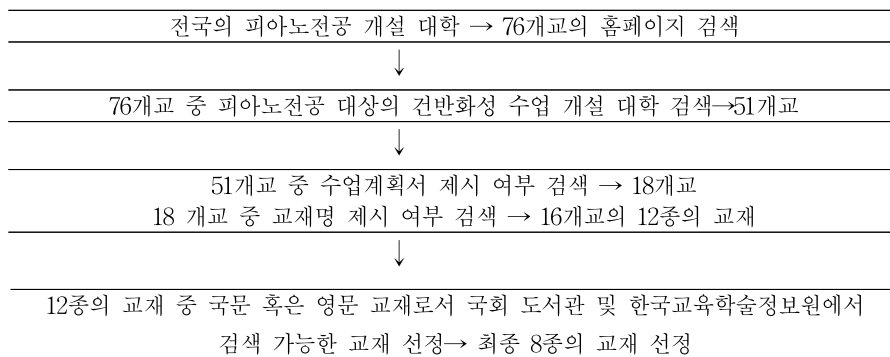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전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건반화성 교재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건반화성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교재 선택과 개발 및 수업 진행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189개의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중에서 한국교육명부 (2011)에 제시된 예체능대학, 예술대학(예술학부), 음악대학(음악학부), 음악과, 교회음악과 등이 개설된 81개의 대학의 명단을 참고하였다. 81개교 중 2018년 6월 15부터 7월 15일까지 각 학교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피아노전공이 개설된 76개의 대학을 선정한 후, 이들 학교의 건반화성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는데, 76개교 중 건반화성 수업이 개설된 학교가 51개교로 나왔으며, 51개교 중에서 수업계획서를

제시한 학교는 18개교였다. 그 중에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제시한 학교는 모두 16개교로서 총 12종의 교재가 검색되었다. 교재를 제시하지 않은 학교는 지정된 교재가 없거나 수업을 위해 제작된 핸드 아웃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교재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되었으며 국회도서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색 가능한 교재로서 8 종의 교재들이다. 연구대상 선정 절차와 분석대상을 16개의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선정 절차



<표 4>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건반화성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

구분	교재명	출판연도	저자/역자	출판사
A	숫자가 주어진 건반화성실습	1987년	R.O.Morris/ 주성희	세광음악 출판사
B	건반화성의 연습	중쇄 2006년	J. Barham Johnson/ 이용일	현대음악 출판사
C	건반화성학	7판 2003년	G.A.Wedge/ 최병철	수문당
D	건반화성	6판 2016년	I.Lehmer/ 박미애, 강순미	수문당
E	건반화성과 반주법	제 22쇄 2014년	황철익 편저	태림출판사
F	건반화성을 겸한 표준 반주법	1988년	황철익	세광음악 출판사
G	Harmonization at the Keyboard	7판 1976년	A. Frankenphol	Wm. C. Brown Company
H	A New Approach to Keyboard Harmony	1979년	A. Brings 외	W.W. Norton &Company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교재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이루어질 교재 개발 및 수업의 방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로서 1) 교재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교재의 출판 년도를 비롯한 단위 구성 및 내용의 분량, 학습 대상 등을 분석한다. 2) 8종 교재가 <표 1>의 초전, 총보 연주, 귀로 듣고 치기, 화성화 하기, 화음패턴, 이조, 즉흥연주, 숫자저음 등 월튼(1951, 1955)등이 제안한 8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각 교재에 제시된 활동의 종류를 파악하고 3) 이 활동들을 각 교재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활동별 특징을 분석한다. 이때 세부적으로 비피아노전공생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서 피아노전공생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서양음악문헌 발췌한 예제가 제시되었는지, 혹은 간단한 멜로디나 포크송 위주로 예제가 제시되었는지 각 교재에 실린 음악 예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초급 화성에서 벗어나 고급 화성(부속화음, 전조, 중 6화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5> 분석 기준

구분	세부 내용
1. 교재의 외형적 특징	- 출판년도, 학습대상, 단위구성, 분량
2. 교재의 활동 구성 분석	- 제시된 활동의 종류
3. 교재의 세부 내용 분석	1) 각 교재의 전반 활동별 비교 2) 예제의 종류와 고급 화성 범위 비교

3. 연구의 제한점

- 1)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색 가능한 교재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 2) 검색된 교재 중 국문 혹은 영문의 교재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온라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한 교재를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이기에 수업의 실제(수업의 내용 및 부교재의 사용의 여부)를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IV. 건반화성 교재 분석

1. 교재의 외형적 특징

본 절에서는 각 교재를 출판 년도를 비롯한 학습대상, 분량, 단원의 구성 등의 외형적인 특징을 통해서 저자가 학습대상을 어떻게 염두하고 집필하였는지, 즉 피아노전공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재로서 적합한지, 대학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량과 구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향후 교재 선택 및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년도는 앞서 <표 4>에서도 나왔듯이, 교재 D와 E를 제외한 다른 교재들은 출판 된지 수십 년이 되었다. 특히 F를 제외한 7권의 교재는 외국교재, 번역한 교재 혹은 편역한 교재이다. 그동안 건반화성에 관한 교재 및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국내 교육 실정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재가 학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범위 정도로만 서술하고 있다. 각 교재의 서문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재가 피아노 연주 실력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량에 있어서는 물론 단원과 페이지 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대학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가령, 한 단원을 1주 혹은 2주간에 걸쳐 학습한다고 할 때 13-15단원 정도 내외가 한 학기 또는 1년에 적당한 분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재 D는 서문에서 주당 1시간의 강의에서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면 B 교재는 다른 교재와의 병행이 필요할 정도로 분량이 적은 편이다. 8종의 교재의 이와 같은 외형적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재의 외형적 특징 비교 <출판년도, 학습대상, 분량>

교재	학습대상	분량
A (1987)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음악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습임을 강조.	15장(106쪽)
B (2006)	- 피아노의 완전한 초보자 및 화성을 공부한 적 없는 초보적인 피아노 연주자 - 5선지에 적는 것으로 화성을 배운 학생으로서 그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서 청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람.	7장(95쪽)

교재	학습대상	분량
C (2003)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8장(194쪽)
D (2016)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맨하튼 음대의 수업에서 사용한 문헌이 포함됨을 밝힘.	26장(229쪽)
E (2014)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유아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의 학생	8장(158쪽)
F (2016)	- 초보자,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전문가, 음악교육가, 작곡을 연구하는 학습자	17장(326쪽)
G (1976)	- 대학의 건반 화성과 클래스 피아노 학습자, 화성학 수업, 고등학교 음악수업 및 개인지도 대상자	23장+부록(228)
H (1979)	- 비피아노전공자와 피아노전공자	11장(179쪽)

8종 교재의 단원의 구성은 그 특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건반 활동을 목차로 하여 단원을 구성한 교재와 화성학의 주제로 구성된 교재로 분류된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교재 H뿐이며, 나머지 교재들은 단원의 구성이 이론서인지 건반화성 교재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화성학의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활동별로 목차를 구성했을 때는 다양한 건반 기술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화성학이 접목되어 수업이 진행 될 수 있겠고, 화성학 주제별로 제시한 경우는 화성학을 근간으로 각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화성학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대표적으로 교재 D와 H의 단원 구성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D 교재와 H교재의 단원 구성 비교

D 교재 단원		H 교재 단원	
1	으뜸화음,	1	Introductory Exercise
2	딸림화음.	2	Chord Progressions
3	딸림 7화음	3	Example of Chord Usages
4	버금 딸림화음	4	Melodies to Harmonize
(중략)		(중략)	
23	이름 7화음의 전위	9	Improvisation
24	딸림 9화음 및 그 밖의 전음계적 9화음	10	Score Reading
(중략)		(중략)	

2. 교재의 활동 구성 분석

본 절에서는 각 교재가 어떤 활동을 포함하며 혹은 제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활동은 Sight Reading(초견), Playing Scores(총보 연주), Playing by Ear(귀로 듣고 치기), Harmonization(화성화), Chord Pattern(화음패턴), Transposition(이조), Improvisation(즉흥연주), Figured Bass(숫자저음)으로 총 8가지이다.

<표 7>에서 제시하듯이 어느 한 교재도 8가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8종의 교재 중에 16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 A는 숫자저음을 바탕으로 화성 붙이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재와 비교하여 강점이지만 두 가지의 활동에만 국한된 교재로서 균형 잡힌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재와 병행하여 사용되어야 하겠다.

교재 A와 더불어 번역서인 B와 C는 비교적 활용 비율이 높은 편인데 각각 3개의 활동들만을 포함하며 제외된 활동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교재 D 역시 번역서로서 국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져 왔는데, 초견과 귀로 듣고 치기 외에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교재 G와 H는 원서로서 16개 중 각각 한 개의 대학에서 사용될 만큼 가장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각각 5개, 6개의 활동을 다루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서는 아니지만 이론 설명은 비교적 간단하고 음악예제를 통한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 교재인 만큼 대학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재 G는 러스티드(1984)와 맥도날드(1989)의 연구를 통해 미국 대학의 피아노전공생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와 건반화성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임이 나타났다.

<표 8> 교재의 구성 (활동)

교재	활동의 종류
A	화성화 (반주), 숫자저음
B	화성화 (반주), 화음패턴, 숫자저음
C	화성화 (반주), 화음패턴, 이조
D	화성화 (반주), 화음패턴, 숫자저음, 이조, 즉흥연주, 총보 독보
E	화성화 (반주), 화음패턴, 이조
F	화성화 (반주), 화음패턴
G	화성화(반주), 화음패턴, 즉흥연주, 숫자저음, 귀로듣고 치기
H	화성화(반주), 화음패턴, 이조, 즉흥연주, 숫자저음, 총보 독보

이와 같이 화성화는 8종의 교재 모두 다루고 있고, 화음패턴은 7종의 교재 그리고 숫자저음 5종의 교재에서 제시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초건은 어떤 교재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핸드아웃을 사용 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해서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수자는 피아노전공생에게 요구되는 초건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교재의 병행과 더불어 교재의 선택 및 개발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귀로 듣고 치기 또한 단 한편의 교재에서 다루는데 이는 교수자가 직접 연주하거나 준비한 음원을 듣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업이기에 이 또한 실제 수업에서 하는 활동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교재 A. B. C. E. F와 같이 2-3가지 활동만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담고 있는 교재들을 주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다른 교재와의 병행이나 따로 제작한 자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교재의 세부 내용 비교분석

(1) 다양한 건반 활동

① Sight Reading(초견)

많은 연구들은 초견이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발 될 수 있다고 말한다(Elcan, 1957; Kopiez, 2006, 배수영, 2009). 맥도널드(1989)는 교수들을 통해 피아노 클래스에서 피아노전공생을 위한 여러 건반 기술 중 초견을 가장 중요한 기술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월튼(1951), 덕월스(1960), 닉렛(1966) 모두 초견 훈련이 필요한 영역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재들 중에 초견에 관해 다루는 교재는 한 권도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교재의 사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비전공자에 비해 피아노전공자에게는 다소 불필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초견이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 향상되거나 개발 될 수 없는 선천적인 재능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② Playing Scores(총보 연주)

교재 H의 저자들은 악보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은 피아노로 연주해 보는 것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작곡가나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악보를 어떠한 연습 없이도 바로 피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지휘자나 작

곡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는 악보에 담긴 내용을 각자 가능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 주장은 두 단으로만 된 독주곡의 보표에 익숙하며, 알토 클레프, 테너 클레프, 이조 악기들의 악보 등에 경험이 부족한 피아니스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협주곡을 비롯한 여러 앙상블 연주 상황에서 총보를 통해서 악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총보 연주는 악보에 나타난 모든 음들을 피아노에서 표현할 수 없기에 어떤 음을 제외해야하는지, 중복해야 하는지, 음역을 옮겨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훈련도 함께 된다. 본 연구의 8종의 교재 중 교재 D와 H에서만 이 활동을 다루는데, 교재 D에서는 스코어 (Score)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파트를 양손에 적절히 나누어 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까이 있는 음은 서로 모아서 칠 것을 제안한다. 이와 유사하게 H 교재에서도 높은 음역의 음은 오른손으로, 베이스는 왼손으로 연주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여러 단의 보표를 읽을 때는 하나씩 읽어 가는 것보다 모두 동시에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케스트라 총보 연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선 코랄 악보부터 훈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악보 [1]은 교재 D에서 제시한 예제로서 현악 4중주를 피아노로 축소하여 연주하는 활동이다. 두 개의 바이올린이 옥타브로 이중되는 프레이즈에서는 제 1바이올린만 연주하고, 첼로파트의 이중 페달에서는 C 만 한 옥타브 높여 연주하라고 되어있다. 악보 [2]는 교재 H에 제시된 예제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중 일부로 관악 앙상블이다. 바순은 이조하지 않지만 클라리넷은 이조하여 두 단을 동시에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Mozart, *Divertimento*, K. 229, II, Trio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ree woodwind instruments: Clarinet in Bb 1, Clarinet in Bb 2, and Bassoon 1. The music is in 3/4 time and features dynamics of forte (f) and piano (p). The score is for a Trio from Mozart's Divertimento, K. 229, II. The instruments are arranged in three staves. The first staff is for Clarinet in Bb 1, the second for Clarinet in Bb 2, and the third for Bassoon 1. The music consists of several measures with various notes and rests, and dynamic markings.

[악보 1] 교재 D 의 Playing Scores 예제, p.212.

Trio Schubert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Trio by Schubert. It consists of four staves: Violin I, Violin II, Viola, and Cello. The key signature is two flats (B-flat major),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dynamic marking is *pp* (pianissimo). The Violin I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lurs and ties. The Violin II part has a more rhythmic line. The Viola and Cello parts provide harmonic support with sustained notes and some movement.

[악보 2] 교재 H의 Playing Scores 예제. p.141.

③ Playing by ear(귀로 듣고 치기)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귀로 듣고 기억하여 연주하는 활동으로 청음훈련과도 연관되며 즉흥 연주를 위한 기초 활동이기도 하다. 8개의 교재 중 단 한권에서만 다루고 있다. 교재 F는 귀로 듣고 치기 활동에서 다양한 포크송의 제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Camptown Races*, *Yankee Doodle*, *You Are My Sunshine* 등과 같이 다양한 곡목의 제목만을 명시하고 귀로 듣고 치기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수가 연주하는 곡을 듣거나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월튼(1955)은 귀로 듣고 치기의 활동에서 익숙한 멜로디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Harmonization & Accompaniment(화성화 하기 및 반주)

월튼(1995)은 멜로디를 화성화(Harmonization) 할 때 다양한 반주 유형을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교재에서도 <표 3>에서 제시했듯이 ‘멜로디를 적절한 반주형으로 화성화 하라’ 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화성화(Harmonization)는 반주(Accompaniment)와 뚜렷한 구분이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두 활동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각 교재에 제시된 화성화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반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는 블락화음, 브로큰 코드, 왈츠, 알베르티 베이스 등의 다양한 반주유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적합한 화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멜로디에 3화음 형태로 채우는 활동, 멜로디를 4성부로 만들어 양손으로 나누어 치는 활동, 그리고 2개의 외성부가 주어진 상태에서 내성을 채워서 코랄 형태로 하는 활동들로 말할 수 있다. 반주를 포함한 화성화는 <표 2>에서도 제시했듯이 8종의 교재 모두 이 활동을 다루고 있다.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성화에서 머무는 교재 A와 B를 제외한 다른 교재들은 다양한 반주 유형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반주 활동의 예제는 포크송과 더불어 서양음악 문헌에서 발췌한 성악곡 혹은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관현악 곡 등의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다. 교재에 따라 반주 유형을 설정해 주거나 학습자 스스로 어울리는 반주 유형을 결정 하게 한다. 각 교재별로 Harmonization과 Accompaniment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각 교재의 화성화와 반주 예제

교재	활동	Harmonization & Accompaniment
A		왼손은 베이스 선율만 연주하고 오른손은 나머지 화음을 밀집위치로 연주하라
B		오른손은 제일 높은음으로 요구되는 화음에 속한 다른 2개의 음을 그 아래로 채우고, 왼손은 옥타브로 베이스를 연주하라 [악보 3]
C. D. G		- 오른손 멜로디를 화성화 하라 [악보 4] - 주어진 선율에 왼손으로 블락 화음 친 뒤, 지시한 반주스타일을 사용 하여라 [악보 5]
E. F. H		다음 가락에 적절한 반주 유형을 사용하여 연주하라 (화음 설정은 지시되어 있음)



[악보 3] 교재 B, 내림나장조 8마디 예제(내성 채우기), p.20.

Andantino



[악보 4] 교재 D, Mozart의 6마디 예제(오른손 화성화하기), p.35.

Marcato

Schubert



[악보 5] 교재 D, Schubert의 8마디 예제(왈츠형 반주하기), p.100.



[악보 6] 교재 F, 러시아 민요 12마디 예제(어울리는 반주하기), p. 281.

⑤ Chord Pattern(화음 패턴)

이 활동은 한권을 제외하고 7종의 교재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화음 패턴은 반주하기와 즉흥연주를 위한 기초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화음 패턴 (진행)을 학습하는 활동으로서 교재에 따라 기본적인 종지 패턴부터 증 6화음을 포함한 고급 화음 패턴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종지 패턴과 1전위, 2전위 화음의 진행에서 머무르는 교재B와 C와 달리 나머지 교재들은 다양한 화성 진행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장 3화음, 부3화음, 비화성음, 7화음, 증 6화음, 전조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의 화성을 활용한 화음 패턴을 다루고 있는 교재 H는 피아노, 성악, 또는 관현악 문헌에서 발췌한 예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피아노전공생이 실제 연주하는 레퍼토리에 적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표 10> 각 교재의 화음패턴 예제

교재 \ 활동	Chord Pattern (Progression)
B. C. E	중지 패턴, 1. 2전위 화음의 진행
D	중지 패턴, 1. 2. 3전위 화음의 진행
F	중지 패턴, 1. 2 전위 화음, 부속화음의 진행
G	중지 패턴, 1. 2. 전위 화음, 부속화음, 증 6화음의 진행
H	중지 패턴, 1. 2. 3.전위 화음, 증 6화음의 진행

[악보 7]은 교재 H에 실린 예제인데, Beethoven Sonata, Op. 27, No.2, I 의 도입부분을 예로 VI(V of N₆) - N₆- V₇의 화음 패턴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치 화성학 이론서와 유사하게 제시된 이 예제의 패턴을 외울 때 까지 반복 훈련하여 이조 활동까지 이어질 것을 제안한다. 한편 화음 패턴에 맞게 학습자 스스로 연주해보는 훈련 방식은 교재 E에서 제시한다.

Adagio sostenuto

VI (V of N₆) N₆

V₇

[악보 7] 교재 H, Beethoven Sonata Op, 27, No. 2, I 도입부, p.36.

IV II₆ V₇ V -₃

[악보 8] 교재 E, Chord Pattern 예제, p.137.

⑤ Transposition(이조)

레머(2016)는 이조를 하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 악곡을 외워서 다른 조로 연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얘기하며 음악의 음향을 내면의 귀로 들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베코비츠(Berkowitz, 1975)는 자신의 즉흥연주 기술은 이조를 통해서 개발되었음을 밝히며, 이조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위의 화음패턴 학습과 마찬가지로 이조 또한 즉흥연주를 위한 기초 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월튼(1955)은 이조활동은 모든 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화음과 음정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음악문헌 중에서 특히 성악곡으로 이조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조 활동만을 위해서는 ‘가곡’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4종의 교재에서만 이조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각 교재의 이조 예제

교재 \ 활동	Transposition 의 예
C	주어진 화성 악구들과 악보를 각기 Gb, G, Ab, A장조 등의 조로 이조하라
D	브람스 가곡의 반주부를 A, F 장조로 이조하라
E	주어진 a-moll 의 곡을 e-moll 로 이조하라
H	모든 화성진행 예제는 외울 정도로 익힌 후, 모든 조로 이조하라

이와 같이 교재 D처럼 음악활동 현장에서 가곡의 반주부를 이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성악가와와 양상블 때 즉흥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반드시 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교재에는 교재 C처럼 멜로디에 화성화 하거나 반주 활동을 한 후, 이조까지 제안하는 교재도 있는 반면 교재 A, B, F, G처럼 전혀 이조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는 교재도 있다. 그러나 이조는 어떤 예제를 가지고도 가능한 활동으로 다른 활동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재에 활동 예제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덧붙여 진행할 수 있다.

⑥ Improvisation(즉흥연주)

월튼(1955)은 건반화성의 다른 모든 활동은 ‘즉흥연주’를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코비츠(1975)는 과거 모차르트나 클레멘티가 훌륭하게 즉흥연주를

했던 것에 비해, 오늘날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가들은 즉흥연주에 익숙하지 않고 마치 즉흥연주가 재즈 음악가를 위한 전유물이 된 현실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교재 D, G, H에서만 즉흥연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교재들이 제시하는 즉흥연주 활동은 크게 3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성과 박자만을 제시하며 즉흥연주 하거나, 주어진 악보에 이어서 즉흥연주를 제안하거나 제시된 로마 숫자로 표시된 화음 패턴 진행에 맞게 즉흥연주를 제안하는 경우이다.

<표 12> 각 교재의 Improvisation의 활동 예제

교재	활동	Improvisation의 예제
D		B장조 3박자의 모티브를 만들고, 대응악절 즉흥 연주
G		- 주어진 악곡에 이어서 즉흥 연주하라 [악보 9] - 다음 제시된 화음 패턴에 맞게 즉흥 연주하라 1) $\frac{6}{8}$ I V⁷ of IV V⁷ I ii⁶ V⁷ I 2) $\frac{4}{4}$ D G A⁷ D D⁷ G A⁷ D
H		- 짧은 선율 (2-4마디)과 4성부로 즉흥 연주하라 - 비화성음을 포함하여 주어진 화성 진행 꾸미기, - 주어진 테마를 변주하여 연주하기.

Fast

[악보 9] 교재 G, 주어진 악곡에 이어서 즉흥연주하기,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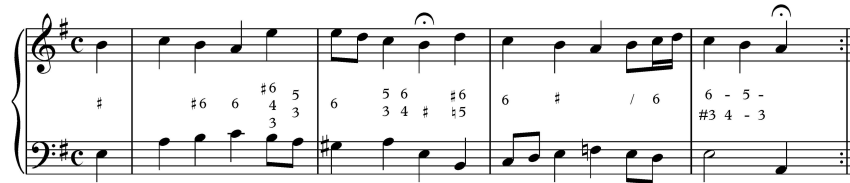
⑦ Figured Bass(숫자저음)

숫자저음 실습은 현대의 피아니스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활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로크시대의 숫자저음은 당시 연주상황에서 오직 건반 연주자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기에(Allen Brings 외, 1979) 오늘날 대부분의 피아노전공생을 위한 건반화성 수업에서 학교에 따라 주요 수업 내용으로 다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교재들 중 가장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A는 새롭게 작곡된 연습 예제 이외에 바하, 헨델, 멘델스존 등의 음악문헌에서 발췌한 예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격 또한 연습예제와 유사하다는 점이 아쉽다. 교재 B의 예제들도 교재 A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교재 G의 경우, 다양한 시대의 여러 작곡가의 악곡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포크송 등을 제시한다. 교재 A와 B가 4성부 코랄에서 발췌하여 다소 연습예제처럼 느껴지는 것에 비해, 교재 G는 바로크시대의 음악예제를 벗어나 하이든, 슈만, 시벨리우스 등의 관현악곡 및 성악곡과 포크송 등을 편곡하여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2개의 외성과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내성을 채우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교재 H는 바하, 헨델, 라모, 텔레만 등의 오라토리오의 레치타티보나 칸타타에서 발췌한 곡으로 가사와 함께 제시하였다. 교재 G에 비해 멜로디의 리듬이 다소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연습 예제의 성격이 아니어서 학습을 함에 있어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저음 실습에 있어서 4성부 코랄 예제를 벗어나 다양한 문헌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멜로디나 악곡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표에서 각 교재가 숫자저음에 있어서 어떤 예제들을 활용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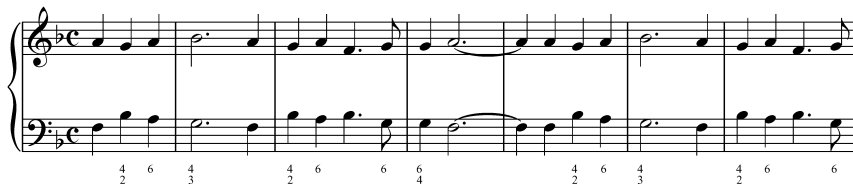
<표 13> 각 교재의 숫자저음 예제

교재	활동 Figured Bass에 활용된 예제
A. B. D	바하, 헨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곡가의 4성부 코랄 내성 채우기 예제, [악보 10]
G	하이든, 슈만, 시벨리우스 등의 관현악곡, 성악곡 [악보 11]
H	바하, 헨델, 라모의 오라토리오 및 레치타티보 예제 [악보12]

다음에서 숫자저음 실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재 A와 비교를 위해 교재 G와 H의 대표적 예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악보 10]. 교재 A, 외성이 주어진 코랄 예제, p.74.



[악보 11] 교재 G, Sibelius Finlandia 일부발췌, p.186.

Andante

(1) (2)

How the birds all a bout sing in this leaf_y for est. And so I know by their

(3)

chirp ing that no thing lacks for their hap pi ness. Like me, they taste the

[악보 12] 교재 H, Rameau, Cantata L'Impatience, p.92.

2) 예제의 종류와 화성의 범위

본 절에서는 각 교재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예제들의 종류를 비교 하고자 한다. 월튼(1955)이 제안 했듯이, 연습 예제 (Musical Exercise) 가 아닌 실제 음악 (Real Music)으로 건반화성을 학습한다면 연주를 전공하는 피아노전공생이 학습된 내용을 각자의 연주곡에 적용하기에 훨씬 용이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

다. 또한 예제가 서양음악문헌에서 발췌한 곡으로서 난이도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피아노전공생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적인 교재로서 학습이 더욱 유익하며, 학습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음악예제 따른 교재의 분류¹⁾

분류	세부내용	교재
Real Music	서양음악문헌	D, H
	포크송	F, G
Musical Exercise	작자 미상의 곡 / 코랄 연습 예제	A, B, C, E

<표 14> 과 같이 작자미상의 곡과 코랄 연습예제들로 구성된 교재 A, B, C 그리고 E 는 자칫 학습의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포크송으로만 제시한 교재 F 와 G 또한 서양음악문헌에서 발췌된 곡이 거의 없기에 예제 구성의 불균형이 아쉬운 점이다.

피아노전공생에게 적합한 난이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로서 고급화성 포함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급화성에서 벗어나, 전조, 부속화음, 증 6화음 등의 고급 화성은 실제 피아노 문헌에서도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건반화성 수업에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초급화성 이외에 제시된 각 교재의 화성의 범위를 표로 제시하려고 한다.

<표 15> 각 교재의 화성의 범위

교재	세부 내용
A	증 6화음, 동형진행
D	전조, 변성화음
E	증 6화음, 전조, 변성화음
F	부속화음, 전조, 동형진행, 증 6화음
G	부속화음, 전조
H	부속화음, 전조, 변성화음,

1) G 교재는 총 375 곡의 예제를 제시하는데 이 중 <악보 10>을 포함한 5개의 예제를 제외하고 모두 포크송으로 이루어져 위와 같이 분류한다.

이와 같이 8종의 교재에서 교재 B와 C를 제외한 6권은 고급화성을 다룸으로써 화성학적으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아노전공생들에게도 물론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아노문헌에서 고급 화성은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교재 선택과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피아노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반화성 수업의 교재들 간의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이루어질 교재 선택 및 개발과 수업의 내용에 방향성을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재의 외형적 특징, 실제 연주나 교육현장에서 피아노전공생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건반활동, 그리고 화성의 범위와 예제의 난이도를 분석 기준으로 8종의 교재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언한 것이다.

첫째, 8종의 교재 중 5권의 교재는 출판 된지 수십 년이 흘렀고, 8종의 모든 교재는 피아노전공생 대상의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음악전공생과 비음악전공생 모두를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였다. 또한 교재들이 출판 된지 매우 오래되었고, 교재들의 학습대상이 음악전공생과 비음악전공생까지 모두 아우르는 교재들이 대부분인 만큼 피아노전공생만을 위한 전문적인 교재의 개발과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대학 학사 일정에 적절한 분량의 교재의 선택이 요구된다. 7종의 교재는 한 학기 또는 1년의 학사 일정을 고려할 때 분량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교재 B의 경우 분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에 보충 자료 및 교재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균형적인 건반화성 수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교재의 선택 및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인 8종 중 어느 한 교재도 8가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 교재는 없었다. 실제 수업에서 별도의 자료를 사용하는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재에 따라 많게는 2개에서 6개의 활동들을 포함하여 그 구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 A, B, C는 담고 있는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균형적인 건반화성 수업을 위해서 활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의 선택과 부교재의 병행이 요구된다.

특히, 모든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유일한 활동은 ‘초견’이었다. 부교재로 초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알겠지만 피아니스트들에게도 연주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인 만큼, 중요성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 3권의 교재에서만 다루고 있는 즉흥연주는 국내 대학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숫자 저음은 바로크 스타일로서 오늘날에 활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학습의 목적과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오직 건반 연주자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대의 피아노전공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학습의 흥미를 위해서는 예제의 선택이 중요하다. 바로크 시대의 4성부 코랄 예제보다 학습자들에게 더욱 익숙한 서양음악문헌의 예제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피아노전공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비피아노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차별화된 예제의 종류와 화성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 숫자 저음뿐만 아니라 월튼(1955)은 다른 건반 활동 예제에서도 연습 예제가 아닌 실제 음악을 제안하였다. 건반화성 수업이 이론 수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연주하는 곡에서의 발췌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제시한 활동예제의 종류로서 작자 미상의 곡이나 코랄 연습 예제로 이루어진 교재가 4권, 실제 음악을 제시한 교재 중 포크송과 서양음악문헌에서 발췌한 곡이 주요 예제인 교재는 각각 2권이다. 교재 선택이나 예제 선택에 있어 그 종류가 한 가지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문헌이나 포크송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화성의 범위에 있어서 2권을 제외한 6권의 교재에서 모두 피아노전공생들의 연주곡에서 많이 분석되는 고급화성의 범위까지 부분적으로나마 다루고 있어 이론과 실제 연주곡과의 접목이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외형적 특징을 비롯한 각 건반 활동, 예제의 종류 그리고 화성의 범위 측면에서 교재 D와 H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8 종의 교재 중 비교적 균형 잡힌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출판 된지 매우 오래되었고 피아노전공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재가 아니며 나머지 교재들은 구성과 내용면에서 불균형적 부분들이 드러나 부교재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교재 선택과 개발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국내 대학의 건반화성 수업의 교재사용과 더불어 내용과 운영 등의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실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며 개선점을 바탕으로 피아노전공생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건반화성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http://stdweb2.korean.go.kr/>(2018. 7.25 검색)
- 권수미 (2010). 한국 피아노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음악과 민족**, 39, 315-344.
-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 (2018). **음악과 교재 연구** (제 3판). 서울: 학지사.
- 김정미 (2014). 현행 음악대학 건반화성 수업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음악교육공학**, 19, 67-83.
- 배수영 (2009). 악보 읽기와 눈의 움직임에 관한 문헌 연구. **음악교수법 연구**, 9(1), 77-98.
- 한국교육신문사 (2011). **한국교육명부**.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황철익 (1988). **건반화성을 겸한 표준 반주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황철익 편 (2014). **건반화성과 반주법**. 서울: 태림출판사.
- Berkowitz, S. (1975). *Improvisation through keyboard harmon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ings, A. et al. (1979). *A new approach to keyboard harmony*. New York, NY: W.W. Norton and Company. Inc.
- Elcan, I. (1957). Sight Reading can be taught. *Music Journal*, 15(9), 58
- Frackenpohl, A. R. (1985). *Harmonization at the Piano* (7th ed.). Dubuqu, Iowa: WM.C. Brown Company Publishers.
- Johnson, B. (2006). **건반화성의 연습**. 이용일 역. 서울: 현대 출판사.
- Jung, E. (2005). *Promoting comprehensive musicianship in keyboard harmony classes: Suggestions for university piano instructors of non-keyboard music majors in Korea*. DMA. Dissertation, West Virginia University
- Kopiez, R. et al (2006). Towards a Dynamic Model of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Education Research*, 8(1), 97-120
- Lehmer, I. (2016). **건반화성** (제 6판). 박미애, 강순미 역. 서울: 수문당 Lusted,
- D. S.(1984). *The Status of Keyboard Harmony in NASA-Approved Colleges in southeastern United State*. Ph.D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 Lyke, J. B. (1969). What Should Our Piano Minors Study? *Music Educators*

Journal, 56(4), 49-53

Mcdonald, S. R. (1989). *The Survey of the curricular content of functional keyboard classes designed for piano majo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Morris, R.O. (1987). **숫자가 주어진 건반화성 실습**. 주성희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Simpson, K (1963). *Keyboard Harmony and Improvisation*. London: Alfred Lengnick & Co., Ltd.

Walton, C. (1955). Keyboard Harmony for Pianist. *Music Educational Journal*. 42(2), 53-56

Wedge, G. A. (2003). **건반화성학** (제 7판). 최병철 역. 서울: 수문당.

가천대학교 www.gachon.ac.kr

강릉원주대학교 www.gachon.ac.kr

경북대학교 www.knu.ac.kr

경희대학교 www.khu.ac.kr

목포대학교 www.mokpo.ac.kr

부산대학교 www.pusan.ac.kr/

서울대학교 www.snu.ac.kr

성신여자대학교 new.sungshin.ac.kr/

숙명여자대학교 www.sookmyung.ac.kr/

연세대학교 www.yonsei.ac.kr/sc/

이화여자대학교 www.ewha.ac.kr

전북대학교 www.jbnu.ac.kr

충남대학교 plus.cnu.ac.kr

한국종합예술학교 www.karts.ac.kr

한양대학교 www.hanyang.ac.kr

평택대학교 www.ptu.ac.kr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extbooks of Keyboard harmony for
College Piano Majors**

Jung, Yoon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develop Keyboard harmony textbooks for college piano majors and to guide a class curriculum with selecting a proper textbook for Keyboard harmony. Eight textbook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hich have been used in colleges/universities in Korea. General features of the eight different kinds of textbooks were compa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and conte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eight activities of sight reading, improvisation, play by ear, harmonization, playing scores, chord progression, figured bass, transposition proposed by Walton (1951), Duckworth(1960), Nicklett(196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y were written not for piano majors but for both music majors and non-music majors. Most of the textbooks were published decades ago and have not been revised for years. Also there were several textbooks that were limited to 2-3 activities. The study recommend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board harmony textbooks written mainly for piano majors and incorporating more various keyboard skills.

Key words: keyboard harmony, keyboard harmony textbooks, piano majors, keyboard skills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5일(10월 12일), 게재확정일: 10월 26일